

과학은 이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글 | 이종현 _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교수 jhlee@ee.knu.ac.kr

식자들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역사의 단절점, 혹은 불연속점으로 과장하고 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연속되지 않으며, 그래서 외삽에 의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공부의 시작과 이해를 통한 새로운 사고만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겁을 준다. 그러나 인류사에 있어 불연속점은 없다. 다만 압축된 역사적 이유에 따라 급변하는 변곡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하며, 다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이다. 이에

측가능성의 탐구가 곧 과학의 근본이다.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우주만물은 서로 부단히 작용하여 다양한 변종을 만들고 고요함으로 식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사는 미물과는 다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무언가를 애써 만들고, 창조하기 위해 에너지를 투입하고,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고 있다. 이를 ‘인간의 문명’이라고 한다.

인류는 수천 년 이루어 놓은 각각의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오늘의 세상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수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 급변하는 변곡점에서 ‘어떻게 꺾어져 단절되지 않고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재빨리 변화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며, 바로 우리 모두가 당면한 혁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근대과학의 결실인 신기술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기술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지금까지의 통상적 지식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변화양식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유전자조작, 인터넷, 가상현실, 통신매체 등 각종 신기술들이 과거에 우리가 친숙하게 살아왔던 자연환경을 또 다른 인조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기성사회의 어른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해 당황하거나, 또는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신세대 젊은이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탐험해 들어가고 있다. 이제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지식의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세대간의 문화단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인터넷 사용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고, 첨단기술용어가 가득 찬 조건신문을 대할 때, 또 대화 속에 끼어들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껴야 한다.

과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인가? 철학자, 사회학자, 신학자, 경제학자, 관료, 정치가, 사업가들이 이 혁신적 기술을 통찰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예견하고, 또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사회변혁, 아니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근저에는 신기술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현시대의 조류에서 낙오되고, 더욱이 미래의 정책과 전략과 전술을 준비할 수도 없다.

과학은 이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인가? 문명사회는 고대의 신(神)중심에서 르네상스를 거치며 인간중심의 사회로 변천되어왔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과학중심사회로 가고 있다. 과거의 신기술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 출현되었고, 신문을 이루고 신사회를 만드는 '밀어 올리는 힘'이었다. 그러나 미래과학기술은 사회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엔진을 가지고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특히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 과학과 자본이 결합된 쌍두마차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어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과학과 자본의 두 고삐를 틀어쥐고 인류사회를 위한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과학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근세의 발전은 자본의 흐름이 주도했고 지금은 부유한 선

진국의 몇몇 기관들이 온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 과학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우리도 과학기술계의 전문가들이 결집하고 참여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대이다. 과학자정치인, 과학자관료, 과학자스님, 과학자철학자, 과학자경제인, 과학자사업가가 많이 양성되어야 미래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과학마인드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국가적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3천여 개의 과학 박물관이 산재되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나라도 정부가 만든 테크노파크에 과학기술박물관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학기술박물관을 이용하여 초·중등학교사들의 과학교육연구, 유치원생과 초·중등학생들의 견학 및 실험실습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며, 웰빙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에게도 올바른 과학주의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번의 줄기세포사건에 대해 극히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우리 사회의 반응을 보며 우리가 지나치게 감성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회공동체를 이루어내야만 할 것이다. ㉓



글쓴이는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 회장,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